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역삼로 665-1 ☎ 552-8200 팩스 563-9932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영현 편집국장: 조순진

교회학교 100년을 생각하는 교육세미나

내일과 모레 양일간 본당 및 교육관에서
교회학교 전 교사가 참여하는 교사연수

오후 5시부터 만나홀에서 식사 제공 · 6시 개회예배

교사 재교육은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의 절실한 바램이다. 이는 교회학교 교사 경력이 일정한 성도뿐 아니라, 10여년 이상을 교사로 섬긴 이들도 간절히 원하는 바다. 그만큼 교회학교 교육의 현실적 문제들이 협집교 해소를 위한 갈망이 많은 것이다.

교회학교를 생각할 때, 한국 교회 초창기부터 최초의 1960년대까지는 교회학교 교육이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선도해 갔다. 이는 그만큼 교회학교 교육이 어린 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꾸준히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교육은 복음의 정체성과 효과적인 전달방식 등 모든 부분에서 난맥상을 경험하고 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묻는 대신 모든 것을 '재미'의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만들어가는 메스컴의 강한 영향력에 밀려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회교육 시간은 소위 '재미없는 시간'으로 통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임무조차 내지 못하고 구교와 전통적 방식에만 매달려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번 교사세미나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자 하는 전진한 노력의 일환에서 시도하는 것으로, 모든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금번에 수립되는 의전들은 향후 충현교회의 교회교육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한편, 교육연구소는 금번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저녁식사 및 각 분과별 토론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집을 제공할 예정이다.

날 짜	시 간	일 정	장 소
6월 28일 (월요일)	1800 - 1830	(예 배) 사회: 강독서목사, 기도: 최현진 집로 집로: 김희수 목사	본 당
	1830 - 2000	주제발표: 박형용 목사 [영역나눔 선교교육과 초대교회의 선교교육, 유대인의 선교교육]	
	2020 - 2200	(본 일 토의) [6개 분과별 토의]	
6월 29일 (화요일)	1830 - 1920	주제발표: 이종수 목사 충현교회 [선교교육의 역사와 오늘] 사회: 이인상 집로 기도: 사동석 집로	본 당
	1930 - 2030	(본 일 토의) [6개 분과별 토의]	
	2040 - 2150	(분과별 발표 및 종합토의) 진행 및 사회: 이인상 집로	
	2150 - 2210	(총평 및 마무리) 총평: 남원우 집로, 마무리: 이인상 집로	본 당

제3차 학습세례식

오늘 찬양예배시

99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이 오늘 찬양예배시에 거행된다. 오늘 예식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를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을 인정받게 될 성도들은 학소 28명, 세례 42명, 예식예배 27명, 입교 15명, 개종 4명 등 총 116명이다. 이 예식 이후의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족 및 충현의 성도들은 기도로 동역해야 하겠다.

선교정량훈련

제1기생 모집

선교연구원에서는 선교정량훈련 제1기생을 모집한다. 7월 7일부터 10일까지 훈련을 통해서 미전도종족집단, 민족학적 연구, 정보수집 방법론 및 현장질소, 세계관 분석 등을 다루게 될 집단 훈련에는 선교사 혹은 선교 정량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LMTC과정을 수료했거나 99년도 말까지 수료 가능한 자, 그리고 기초적인 영어회화가 가능한 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선교위원회(구내전화 356(분))으로 하면 된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파송되는 정은희선교사

정은희 선교사 파송예배가 오늘 찬양예배시에 거행된다. 정은희 선교사(34세)는 지난 1996년부터 본 교회 선교연구원 수료로 시작으로 하여 중동부 선교부 MT부터 기도, 서부아프리카 감비아 단기선교, 한부선 MT 수료, 총회 MT 수료, 케냐 및 수단 선교지 적응훈련, 충현대 선교대학원 국제사역학과 졸업 등 막대한 선교훈련과정을 모두 마치고 금번에 본 교회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다.

정은희 선교사는 오늘 파송예배를 드린 후, 7월 3일(토) 케냐를 향해 출국할 예정이며 현지에서는 교육과 제자훈련 교회개척 사역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은희 선교사는 자신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가도록, 막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현지직업과 언어습득에 진보가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의 후원을 기대한다.

다음 주일은 제4차 성찬식

1-5부예배시

다음 주일 1-5부예배시에는 99년도 제4차 성찬식이 거행된다. 성찬을 통해 정결한 영육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세례교인들은 준비하는 한주간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권사회 수련회 7월1-2일

권사회는 7월1-2일 갈릴리움에서 '그리스도의 일꾼과 자제'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갖는다. 영적인 성장과 능력을 얻어 권사회로 덕을 세우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헌신을 다짐하고자 하는 이번 수련회에는 원로·은퇴·사무관 등 750여명의 권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권사회는 금번 수련회가 모든 권사직원들이 초대교회의 뜨거운 믿음과 기도, 주님 안에서 하나로 위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림

1. 고등부에서는 농어촌전도사역에 침묵과 미용봉사로 함께 참여하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대상: 침묵사 2명, 미용사 2명

자격: 충현교회 교인으로서 해당 자격증이 있는 분

사역기간: 7월 28-29일

사역처: 경남 가례군 독면면

※ 동역하실 성도께서는 7월 4일까지 고등부 교사인 김동욱 집사(734-5141: 직장/834-1901: 집)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찬양대 수련회 날짜변경

가브리엘찬양대 8, 16-18

만도린찬양대 6, 24

3. 농어촌전도대 교육

교구 농어촌 전도대원들은 다음 주일(7월 4일) 오후 3시 30분 만나홀에서 전도교육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전국목회자세미나

8월 23일 - 25일 '복음적 설교의 회복' 성도들의 적극적인 홍보 기대

한국 교회 강단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섬기고자 시작한 전국목회자세미나가 이제 제2차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일평생 동안 계속되는 목회자의 설교가 성경 본문에 충실할 뿐 아니라 복음의 중심성을 분명히 가지는, 그야말로 '선교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인 기도와 말씀연구뿐 아니라 겸손한 배움의 시간들이 절실한 것이다.

특히 금번에 초청되는 강사들은 미국의 목회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영향력있는 강의를 주도해오고 있는 교수들로 선정되었는 바, 성도들은 주위의 타교회 교역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셔서 본 세미나를 통해 큰 도전과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다. 전국목회자세미나의 일정 및 주요 관련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강사



리처드 크레이븐(Richard M. Craven)
(웨스트민스터신학원 실천신학 교수)
성경학의 원리(아담과 동시대 WTS)를 통찰한 현장적 인 강의로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실천신학 교수



리처드 프래트(Richard Pratt)
(리폴드신학원 구약학 교수)
유니온신학원(M.Div), 웨스턴대학 신학원 (Th.D)
역대기 강의 전문으로 세계 각지를 다니며 성경학에 이 같은 강의를 주도하고 있는 HTS 구약학 과정

대상: 전국의 목회자(제임) 및 부교역자

장소: 충현교회 본당

통역: 김승근 목사(미국 연약교회 담임)

회비: 3만원



김 창 인 목사

선민이 받을 복 (이사야 44:1-5)

“... 나의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말라 대저 내가 같은 자에게 물을 주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산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벼들같이 할 것이라...”

1. 하나님께서 선민을 부르는 칭호가 어떠합니까

(1) 아람이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종 아람아...” (1절)
제일 처음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람아”입니다. 아람이란 거짓말장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아람은 장자의 복을 받으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

다. 이러한 신앙의 질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에도 내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교회와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내가 구원 받고 몸이 튼튼하고 사업이 잘 되고 아들 딸이 복을 받으니... 그것이 만만하여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은혜를 받아 교회에 덕을 세우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되돌아갈 교회와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2)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까

“...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1절)
아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이기주의자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승리자, 꾀박과 한탄을 이겨내는 승리자입니다. 이런 승리자에게는 복이 따라 옵니다. 이긴 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람의 시절에는 인간적으로 이기는 것 같았으나 영적으로도 지는 때이고, 양심에 변이 발생했지만 이스라엘의 때는 영적으로 승리하였으므로 양심에 자유가 생깁니다.

(3) 여수론이라고 부르십니까

“... 나의 택한 여수론아...” (2절)
“여수론”은 “나의 의로운 자여”라는 뜻입니다. 이기주의를 벗어날려고 하는 의로워져서 하늘나라 시민의 자격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몸은 예메탄에 나고 앉았으나 영혼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가득차 있는 아람인지, 이제는 나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꾀박을 이기고 죽음을 각오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이스라엘인지, 생명이 의로움과 같이 의로움 행동이 의로운 여수론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볼 때에나 아기가 볼 때에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너는 의로운 여수론이구나’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자리에까지 믿음이 자라나야 하겠습니까.

2. 선민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토대에서 조성하고...” (2절)
우리의 육신을 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불러 주십니다. 내 몸을 지어 주신 것이 고맙고 내 영혼을 지어 주신 것도 너무 고맙고 내 피로와 때를 준 것을 독생자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주셨으니 은혜가 얼마나 큼니까?

(2) 도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 너를 도와 줄 여호와와 말하도라...” (2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 주십니까? 첫째로, 구원하여 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멸망의 용덩이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둘째로, 세상 끝날까지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하시면서 도와 주십니다. 셋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도와 주십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열려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비구하게 부탁하기도 말고 마귀에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우상 앞에서 절하지도 말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천하 만민 앞에 의논한다면 해결해 주십니다.

(3)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와 주신다는 것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분간해야 합니다. 도와 주신다는 말은 내가 앞장 서는데 하나님이 뒤를 밀어 주시는 것이고, 붙들어 주시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어떤 자리의 손이 아버지의 손을 붙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손이 자녀를 붙들었습니까. 어느 것이 더 든든하겠습니까? 어떤 자리가 아버지의 손을 붙드는 것이 혼자 가는 것보다 좋겠으나 아차 하여 손은 놓칠뉘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더 든든합니다.

(4) 나를 믿음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는 자제는 어느 정도는 교만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

옵소서”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나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지령이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신앙 세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말으옵소서”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내 생명과 재산을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립니다. “말으옵소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

다. 맹령만 하소서” 완전히 맡겨 버리고 내 의견이나 고집이 없습니다. 복종합니다. 이런 세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대로 쓰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3. 선민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1)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 두려워 말라” (2절)
“내가 너를 도와 줄 것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첫째로, 원수들이 방해할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길을 가다가 원수가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겁내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생활을 살다가 육신의 생활이 가난해지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아침 만나로 먹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책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귀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기 도두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은 너무 크고 자신은 감당할 힘이 없는 것같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못하겠습니

다. 내게도 복종하지 아니하는 불신의 교만입니다. 넷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루가 짧으면 하늘 나라에서의 하루가 더해집니다. 천국의 하루가 땅의 하루보다 더 좋은데 육신의 생명이 티끌 세상을 떠나 하늘 나라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①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대저 내가 같은 자에게 물을 주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산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3절)

첫째로,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주신다는 말은 썩 트는 생명과 자녀라는 성장과 꽃피는 영광과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모습 마심 정도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통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②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성령을 받은 결과는 어떠합니까?
첫째로, 솟아나는 출세가 있습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벼들같이 할 것이라” (4절)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시냇가의 비드나무가 풀밭에서 쭉쭉 자라 올라가는 것처럼 주의 환경 속에서 흔들림없이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전도가 됩니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나 할 것이며 혹은 아람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5절)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흥분하게 된 사람을 불신자가 볼 때에 입을 딱 벌리고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제 발로 교회에 찾아 온다는 말입니다.

4.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 생활의 헛수가 더해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숙한 선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겉과 드러없이 없고 죽음까지 감내하고 주님만 높이는 신앙의 결을 걷는 단계까지 성장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김 성 관 목사

성찬에 대비하여 살피자

(고린도전서 11: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과 자기 살피기

지난 1월과 3월, 그리고 5월의 첫 주일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기념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첫 주일을 맞아 우리는 약속된 순서대로 이렇게 성찬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사실, 매 성찬식은 우리의 자기점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28절). 주님의 만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으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곧 성찬은 죄인을 개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영혼을 복돋우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어리함을 살피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목적

우리가 자신을 살피는 목적은 우선 주님의 만찬에 합당한 자로 받아 먹고 마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침침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로 한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나를 살피는 일은 내 밖에 있는 교역자나 교사 등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자신을 살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피므로 주님과 교통에 진실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심령을 살피 겸손히 주님의 만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풍부한 이혜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 때 우리의 심령은 감사로 가득하게 되고 신뢰와 기쁨 속에서 성찬을 맞게 됩니다. 주께 감사해 하시는 그 거룩한 만찬에 합당한 상태로 준비될 때 우리들의 마음은 비로소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슬퍼함과 기쁨

자기를 살피 필요 없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찬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살피 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회개뿐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해로 이끌고 그리스도와 의의 연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찰의 은총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들의 반복되는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들의 죄사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내적 성찰과 반성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조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를 통한 죄책감으로 나아가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할 만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자신을 살피는 질문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살피기 위해 우리가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만찬의 성격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만찬은 장례식이 아니라 전지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는가? 하고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고백과 행동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 자기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을 통하여 살 것임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과연 진짜인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한 감동 속에서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행위

마음 깊숙이에서 모서 들었는가? 우리들의 매일의 행동과 고백, 경험과 계획 그리고 소망은 바로 이 자기 살피기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살핀 후에는

자신을 살피고 난 우리의 의무는 이제 개으름이나 핑계없이 만찬의 떡을 먹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저없이 겸손함으로 떡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살핀 우리는 이제 잔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특별한 명령입니다. 이 잔을 받기 위해 천주교로 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잔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깨우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여 먹고 마시는 것에는 깊은 신비함이 경이로운 성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무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이 진행되는 중에 감사하셨고, 끝날 무렵에는 찬미를 부르셨습니까.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성찬식은 놀라운 잔치입니다. 따라서 귀찮아지던 준비없이 무의미하게 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서 준비없는 약한 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잔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온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자리에 아예 참석하려고 들지도 않는 분들은 이 땅에서 행해지는 성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제외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손한 자리에서 자신을 살피시고 주님과 화해를 위하여 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시길

우리가 성찬전을 통하여 주님께 헌신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함께하시어야 하며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짜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으십니까? 다시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다시오실 때까지 성찬전을 통하여 계속해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부디, 성찬잔을 대하기 전에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안락을 살피시는 은총을 힘입어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

내가 과연 주리

고 목마른가? 나는 과연 나를

자기의 식탁에 초대하신 주님과 더불어 친

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죽음

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먹고 마시며

합당한 심령을 가졌는가? 나는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는가?

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과연 살아 있는 존재인가?’ 하고 물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과연 주리고 목마른가?’ 하고 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은 낯선 객의 입장으로는 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인을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친구만이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나를 자기의 식탁에 초대하신 주님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나의 회심에 대해 준비된 모습을 보여라’고 명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과연 완전히 쓸모없는 옷을 걸치고 있지는 않

는 흉내내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만찬이 과연 나의 영혼을 위한 진정한 음식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먹고 마시며 합당한 심령을 가졌는가?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도들과의 연합 속에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는가? 나는 그들 모두와 더불어 한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나는 내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고 그 안에서 안락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 만찬을 통해 자기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즐기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그분을 아는가?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내

세계 선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복음 들고 케냐로 간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벅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후 제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었습니다. 졸업 후 학원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4년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 주셨고, 그 기다림으로 저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지난 96년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확인한 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사용하신다면 감사함으로 저를 드린다는 기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순간 순간의 어려움들을 통하여 연약한 저를 강건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일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충현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오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6월 27일에 충현교회에서 파송예배를 드린 후 충현교회의 케냐 파송선교사로 7월 3일에 케냐를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지난 3월 선교지 적응훈련차 제가 가야 할 땅 케냐를 밟고 왔습니다. 맛사이족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맛사이족을 향한 많은 사역의 가능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높고 낮은 영양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숙한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맛사이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의 순

중

하심을

본받아 나

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편리한 도구,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사도행전 9장 15-16절의 말씀대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복음 사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를 거룩한 동역자로서 동참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님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선교사는 기도를 먹고 산다는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기도시간에 저와 케냐 맛사이족을 기억하시고 가슴에 품어 주지 않으시렵니까?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기도제목

1.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 성령충만, 영육이 강건하도록
2.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하여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이 되도록
3. 현지 적응과 언어 습득에 진보가 있도록
4. 아프리카선교회(고온비 평신도선교사)와 좋은 협력관계를 위하여
5. 동일한 마음으로 책임있게 기도할 후원자들을 주시며, 그들의 기도시간에 성령께서 늘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6. 충현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도구가 되도록
7. 부모님의 건강과 가족 모두 구원을 얻도록

블레이 금식기도로 함께 출발합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정은희 선교사의 파송을 앞두고 월례에 금식기도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신은 물론 보내는 교회로서 기도와 금식, 재정 지원 등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선교위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 책임있는 기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믿음만 있어 떨어져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99년 6월 정은희 목감

전국일꾼 양성

‘자녀의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여름계절학교에 보내십시오

‘아이들은 여름에 변한다’

이것은 어느 계절별단 단계이론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분명 여름에 변합니다. 다만 이 변화의 선물은 준비된 아이들과 부모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은 흔히 ‘자녀들에게 남겨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신앙이야’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자녀들의 학교공부와 과외수업, 과외활동 등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과 시간과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작성해 보시고, 그 오랜만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과 시간과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기록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오랜만에 자녀를 주임이라 교회학교에 합류시킨 보내는 것 이외에는 작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다수 가정들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자녀 신앙의 책임은 거의 교회학교에

에 떠넘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무책임한 행태에 가깝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자녀의 진로와 성직과 건강을 위한 기도에 멈추어 버립니다.

공평에 반했잖아! 각 부서에서 여름 계절학교가 열립니다. 부모님들은 부모님 자신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일전에 단 한 번은 띠 같은 휴가도 받아보고 학생들을 위한 그들의 기도와 구수함을 흘리는 수고로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없습니까? 그 고요한 침묵할 뿐 아니라, 자녀의 시간을 미리 안내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원의 방학특강과 과외수업과 해외여행과 시골방문 등에 일찍이 모처럼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여름계절학교를 위해 시간을 꼭 빼고 보내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는 여름이 되어, 준비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일하는 성숙과 성장의 열매가 풍부한 여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 · 림 · 성 · 경 · 학 · 교 · 를 · 생 · 각 · 하 · 며

즐거웠던 그 시절 성경학교

문영규

초등학교 그 시절이 미소와 함께 어렴풋이 떠오른다. 여름방학과 함께 시작하는 여름성경학교. 동년 친구들과 폐지야 땅을 뽀뽀하며 교회에 들어간 우리. 교회 역시 더럽고 뽀뽀하며 배우는 우리와 더 많은 땅을 흘리며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왜 그리 되었는지, 어딘지언키엔 선행교사와 넉넉지 못했던 이 시절이었으나 당면한 것이었으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배우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에 남들보다 뛰어난가. 그래서 자신있게 제출했던 네 선생님께서 조화가 안된 그림이라며 등수에 올리지 않자 “그래, 아무도 내 깊은 속 뜻을 모르는데” 하면서 아쉬워했던 기

억, 여름성경학교가 끝나면서 누구나 그 귀한 공백을 두세권의 상으로 받고 기뻐했던 그 시절 우리들.

새월이 지나 젊은 시절에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참가하면서 교사 입장에서 성경학교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 주일과는 달리 비교적 여유있는 시간을 통해 여러 가지 성경적 식을 전달할 수 있었고 연극, 율동, 미술, 찬양, 각종재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조화있는 신앙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1999년 여름, 이제 학부모가 된 나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아이들을 여름성경학교에 보낸다. 그 옛날 그 뒤에는 애이린의 등장으로 사라졌으니 안심하며...

사무엘인가, 흠니와 비느하스인가

한정은

어린이들은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세밀하게 주위의 일들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어린이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친다. 자녀들에게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성경이야기들과 교훈들은 자녀들이 평생 동안 인도를 받는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누구도 완벽할 부모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기 원하십니다. 교회당에만 나온다고 모두가 진심인 신자가 아닌 것을 사무엘을 통해 볼 수 있다. 엘리와 아들들은 불쌍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애매를 멸시하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사기에 충분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아니 하여서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서 양육되어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받았던 것이다.

성령께서 보이지 않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돌보신다.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어린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신다. 여름성경학교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들에게 성경적인 믿음이 산을 옮기고 세상이 감당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선교에 대하여

이국표(청년2부 교사)

약 2년 전에 하와이의 8개 섬 중 큰 섬인 코나(Kona)에 있는 국제선교 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호놀룰루 공항에서 경비행기로 갈아탄 후 도착한 코나에는 하늘색과 바다색이 똑같이 파란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마중나온 선교사인 한인 친구 오윙동만 아르토라 케냐에서 원주민을 위해 복음 전도사역에 애쓰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투병 중 이면서도 복음을 위해 선교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를 만났다. 우리가 오기 바로 전에 현지에서 울 수 없는 평신도 선교사를 위해 스위스에 가서 교육을 해주고 왔다고 했다. 땅끝까지 다 중언이 되라 명령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대로 쓰여지길 바란다 한화가 웃으신 언니였다.

선교 센터에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 공동체 삶을 살

며 일정한 선교 교육을 받고 있었다. 각종 사람들이 모여 숙소에서 목목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어 주신 하나님의 행상인 우리의 몸으로 얘기하며 같이 어울려 식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었다. 가족이 다른 사람도 있고 일부 대학생들 생학을 이용해 비행기 요금과 목사님 후원을 한 장 들고 와서 식당에서 봉사하며 무료로 숙식과 훈련을 받는 이들도 있었다.

복게 노을진 코코넛 나무 아래 앉아 기타 치며 찬양하는 이들, 한국에서의 직업을 잠시 접어두고 복음 사역의 훈련을 위해 왔다는 이들의 찬양이었다. 선교사들의 아이들 교육은 학교가 없고 가정학교교육(home school)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선교 센터에서 선교사들끼리 과목을 맡아 미국 본토 교육책으로 정규교육처럼 가르치고 있었다. 집과 필요한 물자들을 준비해서

는 여호와 이레인 주님, 주님이 가라 명령하시면 모든 것을 두고 보따리 달랑 들고 떠나는 선교사님, 주님의 수많은 소용돌이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 우리의 눈을 베푸는 주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예수님께 맞추어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배웠다.

우리 총회교회는 선교연구원과 평신도 선교사 파송, 단기 선교팀 파송 등 선교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배나서는 죄인임에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는다. 우리는 선교사역에 미력하나마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어떠한 형태로든 동참하겠다고 생각했다.

우도 사역을 준비하며

권정옥(청년2부 교사)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교제인 것 같다. 그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기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지식을 알고, 또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부추하고 교만한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 주셨음을 감사했고, 내 삶을 기쁘게 평안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나만 잘 살면 되었고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말이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목적은 모른 채, 아직 조금은 알면서도 덮어두고 그렇게 살았다.

"전도? 그것은 난 아직 안해도 돼. 난 아직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고, 전도하러 다니기 너무더러 하고서야 하는 데 아직도 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걸. 또 내가 전도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하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보인다. "이제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시리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었다. 이제 나는 나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 가운데, 조금씩 전도를 위해 매달려 한다. 나는 내가 하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인간관계로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며,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던 내가, 여름휴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를 기뻐 하실 분이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결과'를 말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팅 전도하다'고 하시지 않았다. 그저 '땅끝까지 전하

라'고만 하셨다. 우리는 결과에 연연할 필요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열매를 맺고 안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각자가 전도하는 방법과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으며, 그것을 하면 되니까.

이제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전도'의 미려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아니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이제 생경해보면 나같이 부족하고 교만한 사람에게 이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다.

나는 가끔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난 나에게 말한다. '내가 잘 나니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기도한다. '하나님, 나의 의식하는 대상이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언제나 겸손 겸손 겸손으로 인도해 주세요. 나의 한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바울의 고백, 하나님 지도 그대요.'

춘천을 생각하며

김정민(청년1부)

여를 나도·오지 사역, 나에게는 생소한 단어이다. 내 고향 마을은 주님의 90%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다른 사골마을에도 당연히 기독교가 전파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나에게 오지 사역이 매력에 끈 중요한 이유가 있다. 정말 태풍과 같이 나를 강타한 전도방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춘천 사역은 10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 몇년 동안은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춘천에 가서 단지 그들의 농사일만을 묵묵히 도와 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놀라운 계획인가! 나는 그 말에 즉시 결심했다.

제적인 춘천에 첫발을 내디뎠다. 도착한 날은 마을 청소를 하며 우리가 온 것을 알렸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일이 시작되었다. 농부들은 우리의 도움을 좋착한 듯이 바라보았다. 물론 우리가 그곳에 가서 다 잘 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 농사를 한번도 지어 보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잡초대신 곡물을 뿔기도 하고 누렁이를 잡다 놓으라고 했더니 자라는 순을 자르기도 하고, 비료를 체소 위에 뿌려 타죽게 만들었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나는 주방일을 거들다가 귀족으로 가서 늦게 오신 노부부 곁에 앉았다. 농사일로 거칠고 조금조금 해진 손 두 손으로 감싸 잡았다. 참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었다.

그리고 작년, 춘천사역에는 다른 낙도 사역보다 대량 인원이 투입되었다. 50-60명 정도가 가기 때문에 조직이 잘 짜여져 있다. 나는 주방팀장을 맡게 되었다. 안전한가, 못한다고 밥상을 해 보았지만 팀장은 들은 적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요리책을 뒤적이며 식단을 짜고 조리사 후배에게 물량에 대한 조언을 들으며 준비를 했다. 식재가 남지 않는 게 걱정 많은 도움이 되었다. 처음에는 몰랐던 사실인데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재미가 솔솔했다. 팀원들은 절대복종이었다. 나는 물레 혼자서 웃기도 하고 속으로 춘천팀장에게 무지 감사했다. 우리 주방팀은 즐겁게 일했다. 서로의 필요에 부응할 이 없도록 알아서 배려했고 농사일을 나간 다른 형제 자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사방을 청가시켰다.

작년에는 8월인데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 주민들을 처음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 초청한 날 밤 비는 억수로 쏟아졌다. 그런데도 모여드는 차량들이 하나, 둘 늘어났고 우리 가 타고난 차도 몇 대 어른들을 모시러 다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삼계탕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단막극을 보여주고 말씀을 선포했다. 나는 주방일을 거들다가 귀족으로 가서 늦게 오신 노부부 곁에 앉았다. 농사일로 거칠고 조금조금 해진 손 두 손으로 감싸 잡았다. 참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었다.

"예들이, 기다려라. 언젠가 간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올때도 너희들을 향해 달려가겠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교회교육 시리즈1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의 교회교육

1. 불신앙세력
2. 사탄이 불신앙세력
3. 교회교육과 사회과학 분석
4. 사회과학을 본 신앙교육
5. 그 외의 여러가지 학문 분야

강남중학교에 다니는 요한은 요즈음 와서 부쩍 주일이 괴롭다. 그는 얼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 왔기 때문에 주일을 교회 밖에서 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요즈음은 자꾸 땀 생각이 든다. 친구들은 일요일이면 야구장이나 축구장, 혹은 놀이동산에서 신나는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면 일요일의 신나는 이야기들로 웃을 때를 보낸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한은 자기가 보낸 때분한 주일을 떠올린다.

주일 아침이다. 요한은 어머니의 성화에 못이겨 성경과 공과공부책이 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다. 두렵던히 넘기고는 자리에 털썩 앉는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공과공부 시간이다. 이 시간이 요한에게는 제일 싫다. 한 예배실에서 십수개 반이 공부를 하는데 나이가 드신 요한의 선생님은 목소리를 높여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지만 열반의 젊은 선생님의 목소리는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 주반을 돌 때마다 많은 선생님들께 목이 잠기고 목소리를 높이고 아이들은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으니 할 수 없이 듣는 체하면서 앉아 있다. 자신들은 방이리처럼 입을 다물고 선생님들은 성경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킨다.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울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으로 가득찬 공과책도 재미없기는 마찬가지다. 치르고 나면 그 만인 온갖 형식적인 행사들은 왜 하는지도 모르겠다. 마음문을 절대로 열지 않는 반 친구들을 덩동히 바라보는 일도 여색하다.

예배 순서가 끝나면 가족들이 모두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는 집으로 혼자 돌아온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얼굴도 볼 수 없는 가족들. 요한은 오늘따라 불만이 심하다.

지금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다. 어느 시점까지 교회교육은 시대를 앞서 갔다. 그러나 오늘날은 급격한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주일에 벗어난 지 못하는 교회교육은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교육의 현실로는 교육 주체인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수많은 '우리'들의 요한이 점점 교회로부터 마음 문을 닫고 있다. 요한의 불만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교회교육, 결코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원집]

Y2K과 그리스도인(3)

1. Y2K란?
2. Y2K와 발생 가능한 문제들
3. Y2K를 대비하는 그리스도인

시중에 나오는 책들에서 말하는 Y2K 대응 전략들은 대략 이렇다. 특히 1999년 12월과 2천년 1월 사이에는 '예금인출과 사채를 자체하라' '구급 약품과 개인약품 등 준비하라' '휴대용 가스렌지, 양초, 손전 등을 준비하라' '석유난로를 준비하라' '자동차 연료를 채우고 연료를 아껴라' '일주 일본 정도의 식량과 물을 준비하라' '일개월 정도의 물 등들을 준비하라' '주 호시설과 치안시설을 확인하라' '의류들은 주위사람에게 알려라' '진짜계 품의 코드는 빼놓아라' '병원에선 Y2K 스티커를 확인하라' 'Y2K 재난대 비 훈련을 하라' '여행은 가급적 삼가라' 등(Y2K 대국민대비지 중에서). 그런데 만일에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이 모든 준비물이나 너무나 제한적이고 임시적이다. 또한 문제가 전혀 없게 지나가게 된다면 이 모든 준비물들이 우스꽝스런 호들갑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얼굴은 두 손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다. 이 땅의 일을 하나니 땅에 딛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영적인 의미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Y2K와 관련된 자료들을 자세히 읽고 대응을 상세히 파악하면서 그것이 담고 있는 현실적, 영적인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무지와 무관심을 선풍한 믿음의 이름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만일에 만에 하나 문제가 시작된다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에서 흔들릴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난한 낙관 속에서 안일함에 빠져서도 안되었고, 지난한 비관 속에서 사이비 종말주의 등에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흔들림이 없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게이 있으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근신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이다.

또한,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영을 맑게 하여 사물을 똑바로 보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말씀에 기초한 기도에서 온다. 기도하되! 역사적으로 볼 때, 불확실한 시대를 이기는 힘은 항상 신을 통한 순결과 능력과 사랑이었다. 만일에 Y2K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필시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거침없이 것이며, 더욱 패색이 짙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오히려 순결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가장 잘 역사할 수 있는 시기이다. [원집]

우리의 신앙노선 (2)

김차 생장로



교회회장에 열을 올리거나 집회를 열기만 하면 복음송으로 열기를 고조시킬 뿐 아니라 마이코를 이용해 마차 갖가지고 교회를 지르면서 '주이! 3강, '침묵'나' 신앙으로 전파하고 말았으니 성경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벌여야 할 때가 왔다.

장로교회의 목사라면 장로교의 기본 신학과 신앙노선을 따라야 하고 품위를 지켜야 한다. 신학에서 배운 복음의 학문에 불신하고 목회 현장은 다르다. 그렇지만 젊은 목회자들의 생각인 것 같다.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칠 능력이 없으니 온갖 이상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순진한 교인들에게 과연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찬송을 불렀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부른다면 얼마나 온혜가 되겠는가?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성경의 원리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 교회는 좀더 겸허한 마음으로 한국 초대 교회로부터 배워야 하는 고귀한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이어 받아야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신세의 고귀한 전통과 유산을 강고히 사수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온갖 무서운 악령의 압력에 침투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서슴치 않으려 한 것이다. (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장혜 남집사, 16교구

남편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많은 기도와 준비했고 두 번의 음성을 들려 주심을 인해 어렵다는 IMF시기에도 별 두려움 없이, 한없는 기대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려움이 따라왔다. 우리의 부를 요구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며 기도를 쉬지 않았으나 점점 더 어려웠다는 상황으로 인해 나는 혼란스러웠고 처음 우리의 계획대로 했어야만 했는데 후회와 나를 엄습해 왔다.

'주님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주님이 하신 대로 준비했고 두 번의 음성을 들려 주심을 인해 어렵다는 IMF시기에도 별 두려움 없이, 한없는 기대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려움이 따라왔다. 우리의 부를 요구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며 기도를 쉬지 않았으나 점점 더 어려웠다는 상황으로 인해 나는 혼란스러웠고 처음 우리의 계획대로 했어야만 했는데 후회와 나를 엄습해 왔다.'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말씀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많은 시련과 인내와 믿음, 그리고 시간을 요구하셨음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때문에 응답은 주시나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시련, 환난이 따르는 것을, 그렇기라도 그 약속(음성)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보신다면, 이사람(민족)에 일어나는 약속(약속)을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여호수아와 갈렐리아에 들어갔을 때나 기적에 하시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지킬때야 함을 깨닫게 하셨다. 응답받은 것만 큼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그 성취하심을 지켜보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것을, 놀라움은 은혜였다.

한국 초대교회 목회자들은 성경에 입각한 신앙원리는 강조하면서 조용하게 생명의 양식을 교인들에게 공급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대 전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서서 그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때마침 우리 나라에는 군사정권이 일어나고 모든 정권이 경제성장에 최우선적 역점을 두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교회도 교인생활의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장로교회의 강단을 지키는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은 작고하거나 은퇴하고 새로이 등장한 차세대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만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기도하는 소리, 설교하는 목소리를 흉내내 돌출시키는 소리가자 공대문을 내면서 방언, 병고침 등 불신한 방법으로도 흉내 모기에만 열을 올리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오직 양적인 교회성장에만 정신이 빠져 있는 사이, 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므로 영적 갈급함이 심했고 신앙생활이 해이해졌고 장로교의 기본교리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1950년부터 10여년간 한국 교회는 보수신학과 전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앙노선을 배격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원리를 가르치면서 은혜사도인 사정교회 일관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분위기는 어느때 자취를 감추고 교회는 전율교적

지체토석

영아부

학부모 초청 좌담회

지난 주일 예배 후 그동안 영아부에서 느낀 점과 알고 싶은 것 등을 부담없이 속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엄마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 생각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과 영아부가 좀더 발전하며 부흥되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감사했다. 현재 잘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기를 위하여 부족한 부분은 서로 열심히 하여 충현교회 영아부담금 채워지길 기대한다. 또한 영아부실을 새롭게 단장하여 시원한 여름으로 바뀌었다. 맛있는 수박박이 있고 그 속에 원두박이 있고 달고 맛있는 참이와 있으며 구원열차도 승차할 수 있는 영아부가 준비되어 있다. 선교관 103호. 영아부로 구경오세요.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유아부 전양태의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작은 일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칩니다. 유아부는 오늘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주신 말씀을 배웁니다. 의심하지 않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의심하자 물에 빠졌던 베드로. 엄마, 아빠가 있는 힘을 다해 세상의 험한 물결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려 하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키워 주세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친구들이 깨닫게 해 주세요. 유아부는 오전 9시, 11시 두 번 예배가 있습니다. (임미숙 통신원)

초등부

새 친구 초청잔치



지난 주일 초등부에서는 새 친구 초청잔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5월 30일 부터 6월 20일까지 새 친구 초청잔치기간으로 정하고 선생님의 연속 지도와 어린이들의 태신자 카드 작성, 우리 반 장기 결석 학생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잃은 양 찾기 등 다양하게 펼쳐진 행사에서 그 동안 6개월 가까이 나오지 않은 학생들이 나오고 또 새로 친구들이 많이 전도되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며 또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새 친구들이 주 일을 잘 지키며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미숙 통신원)

중등1부

성경퀴즈대회를 마치고

지난 주일 예배 후 성경퀴즈 대회가 있었다. 그동안 창세기 내용을 중심으로 들었던 강도사님 설교와 분반 공부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 위대한 각 반별 대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인시장을 제외한 개인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였다. 우리 친구들은 사회자가 문제를 읽을 때 우리 길게 들었고 반 친구들끼리 서로 의논하며 답을 표시하였다. 결과에 상관없이 반 친구들끼리 서로 고인하며 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이 대회를 통하여 친구들이 올바른 말씀의 이해와 적용으로 친구들의 믿음에 더욱 진보가 있기를 바란다. (김병철 통신원)

중등3부

하나님 감사합시다

지난 주일 교육관 507호는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 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퀴즈대회가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총 5개팀으로 나누어진 진행되었지만 우리 친구들끼리 1, 2등에게 주어지는 상품과

칭찬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라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더 커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송미경 통신원)

장년1부

오늘은 충동원주리 파워 40대 재충전일!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이 있듯 40대를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합니다. 40대의 연수를 계속해 볼 때 장년1부에 해당하는 우리는 인생정기의 후반전의 시작임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경기에서 전후반 모두 잘 풀어가면 승리도 하고 많은 사람의 각광도 받을 것이겠지만, 전반전을 잘했으나 후반전의 실수로 패자의 쓴 잔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40대의 충현의 성도들이시여, 인생의 전반반 삶을 값지게 보내셨는지요? 후반반의 삶도 승리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시지요? 남은 경기에서 참된 코치와 감독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주님을 만나 보지 않으셨습니까? 합동신대대학원 교수이신 박형용 목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의 복된 삶을 위하여 장년1부 충동원주일에 초대합니다. 부부가 함께 동참하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오늘 12시 30분

장소: 교육관 407호

(이동명 통신원)

영어교육부

스리랑카 선교 슬라이드 상영

세계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 주기 위하여 스리랑카 선교 슬라이드(단기집회 시 활용된 것)를 상영하였다. 장면장면마다 전도사님의 간단한 설명이 있었고 상영이 끝난 후에는 퀴즈를 내어 상품을 주었다. 아이들은 대체로 집중을 잘하였고 어려운 용어도 잘 기억하였다. 퀴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같은 또래의 스리랑카 어린이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스리랑카 선교를 위해 기도하였다. (육주원 통신원)

1교구

루디아전도회 자체 바자회 열어

루디아전도회에서는 6월 월례회를 마치고 자체 바자회를 열었다. 닭, 닭, 두방기구, 가방 등이 당일 접수되어 제법 진열대가 채워졌다. 특히 교구 목사 사모님이 기꺼이 기증하신 두방기구는 금세 예배 마치고 불어졌고, 동생에게 선물한다는 집사님의 몸이 되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전해졌고 앞으로의 전도회를 위한 전도의 시간을 가지며 회원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임태경 통신원)

3교구

지역 주민에게 사랑!

6월 19일 오후 4시 57분 석구들이 매봉동산에 모여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주형 목사님의 설교(사도행전 4:29-37)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섬기며 복음의 사랑을 잘 감당하는 5지역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다. 2부 순서로 홍혜국 권사님의 인도로 찬양과 기쁨을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기사가 되던 자부 모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5지역은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는 다짐과 믿지 않는 지역 주민에게 예수님을 믿는 계사의 모습을 보여 주고 인정받자는 새로운 각오도 했다.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5지역이 되기를 기도한다. (백미경 통신원)

7교구

새신자 초청 및 작은 바자회 가진 마리아전도회

임마손을 잡고 걷는 아이들, 임마손에 안긴 아기들, 3-4명씩 차에서 내려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인다. 올해가 된 7교구 마리아전도회 월례회가 있는 날이다. 손에는 작

물·매·들

역지사지(易地思之)

이 말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생각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일은 나를 성숙시켜 준다.

교회에서 깊이 뿌리내렸기에 교회가 내 침착한 익숙한 성도는 처음 와서 서먹서먹하기 짝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참입니다'라고 말한다. 말은 일이 많다고 비명을 지르는 성도는 일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봉사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가서 능동스럽게 '이 부서에 가서 봉사하십니까?'라고 묻는다. 비교적 유복하게 살고 있는 성도는 환관을 당해 피를 흘리며 호느기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을 담아 주기는커녕 '너의 말을 생활에 편가 잘못이 있었을 거야. 빨리 회개해야 해'라고 다그친다. 본질이 왜곡되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용기를 내어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믿음이 없어'라고 독선으로 부러 그 사람의 용기를 꺾는다. 결국엔 제사마다 순종이라는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하여 은근히 다른 사람을 욕박시킨다.

임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권영희 기자)

은 것에서부터 큰 물건까지 들고 상부상으로 한 명, 두 명 모이기에 시작한다. 이런 월례회는 특별히 새신자 초청 잔치도 있다. 각 부서마다 제각기 많은 일들을 하느라 온 회원들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다. 전날 밤부터 많은 비가 내려 가슴을 조렸지만 너무나 좋은 날씨를 주셔서 특별히 아이들이 유난히 많은 우리 회원들은 사랑스런 아이들이 데리고 월례회에 참석하였고 새신자들도 9명이나 보내 주었다. 시누이의 권유에, 이웃들의 초청에 ... 낯선 얼굴들도 있었지만 복사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비록 거지였지만 나사로처럼 영원한 삶, 내일의 삶에 우리 것들을 투자하며 바라보자는 말씀이었다(막 16:25). 우리 7교구 마리아 석구들은 매달 '예수 바람 누리리'라고 외치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자 힘쓴다. 너무나 아름답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되어 더욱 더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계속 맺히지기를 기도한다. (7교구 통신원)

중현복지관

첫번째 결혼식



지난 5월 복직관에서는 여가 훈련생 이민현 씨(35세)가 영혼 유배자인 박수근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집안 어른의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이어졌는데, 복직관과 개관 이래 처음 있는 결혼식이라 모두들 기쁨이 컸다. 이민현 씨는 정신장애인이지만 그동안 복직관의 다양한 훈련을 통해 가사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만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민현 씨와 박수근 씨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혼식 동안 어우러진 환한 웃음으로 그들의 밝은 미래를 보여 주었다. 두 사람은 제후도 신촌 여행을 마치고 현재 경기도 파주에 신촌 보호자리를 꾸미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정혜 통신원)

교회소식 / 목·장칼럼

알림

1. 장학헌금 안내
오늘 1·V부예배시에 드립니다.
2. 맥추감사헌금 안내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입니다.
1·V부예배시 맥추감사헌금을 드립니다.
3. 새신자 환영회
· 일시 : 7월 4일(다음 주일)
· 장소 : 각 교구 모임장소

모임

- 1. 장로 화요새벽기도회
 - 일시: 29일(일) 새벽기도회 후
 - 장소: 교육관 109호
- 2. 안수입식제와 월요새벽기도회
 - 일시: 28일(월) 새벽기도회 후
 - 장소: 교육관 109호
- 3. 주일오후기도회
 - 일시: 오늘 15:00
 - 장소: 사랑부실
- 4. 교구위원회 월례회
 - 일시: 오늘 15:30
 - 장소: 선교관 301호
- 5. 간석위원회 월례회
 - 일시: 오늘 15:10

- 장소: 선교관 505호
- 6. 각 찬양대 총무 모임
 - 일시: 오늘 찬양예배 후
 - 장소: 찬양위원회실
- 7.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일시: 7월 1일(목) 새벽기도회 후
 - 장소: 실업인전도회실
- 8. 권사 4지회 월례회
 - 일시: 30일(수) 1부예배 후
 - 장소: 사당부실

남녀전도회

1. 바울 4지회 월례회
-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 장소: 임마누엘홀
2. 베드로 4지회 월례회
- 일시: 오늘 15:00
- 장소: 임마누엘홀
3. 베드로 14지회 월례회
-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 장소: 만나홀
4. 요한 14지회 월례회
- 일시: 오늘 19:00
- 장소: 원성주 집사댁
(☎ 682-6332)
5. 한나 7지회 월례회
- 일시: 28일(월) 11:00
- 장소: 울림떡공관내 팔각
(우천시: 칸빈홀)

6. 에스더 10지회 월례회
·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 장소: 교육관 201호
7. 에스더 12지회 월례회
·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 장소: 교육관 307호
8. 루디아 3지회 월례회
· 일시: 7월 2일(금) 11:00
· 장소: 교육관 307호
9. 루디아 12지회 월례회
·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 장소: 교육관 308호
10. 미리아 3지회 월례회
· 일시: 7월 2일(금) 연합교구모임 후
· 장소: 교육관 109호

결혼

1. 정순민 군(정우현 집사, 정영신)

◆ 7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번호	일	주요역사(장르)					창원시내 연출	수요역사(권사)	
		I	II	III	IV	V		I	II
7	4	손 철	김준권	임기재	이정우	김학기	배승길	최태욱	손순자
	11	한윤규	미상란	김영수	황영인	엄영섭	정정길	이경원	송명희
	18	윤병식	우기전	장경철	김경철	송기홍	배종규	강홍희	이경호
	25	김의식	정후아	서상식	손동운	노광현	배종규	홍순희	한소현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908	이 찬 1		청년2부		918	이원식	6	청년1부		928	장병준	19	대학부	
909	김해자	1	에스더		919	방주희	8	에스더		929	김순복	1	청년2부	임동개(1)
910	지현희	1	청년2부		920	박기철	19	청년2부	조현주(3)	930	한수경	19	대학부	한정식(19)
911	김수연	1	청년1부		921	장병태	8	바울		931	최태욱	19	청년1부	서인순(2)
912	기정선	5	바울		922	임정자	8	에스더		932	안병우	19	청년1부	
913	기정용	5	소망부		923	노명환	8	바울		933	최지민	19	청년1부	
914	김경배	5	소망부		924	이희숙	8	루디아		934	김선미	19	청년1부	
915	이민정	5	청년1부		925	박인애	10			935	유문진	19	청년1부	
916	이필녀	6	소망부	안창술(6)	926	차근병	12	소망부	이미애(12)	936	이은경	19	청년1부	지순애(17)
917	이필녀	6	청년2부	이봉남(4)	927	서규일	13	청년2부	심승덕(15)	937	김경호	19	청년1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장칼럼

IMF 사태와 신앙생활

김인식

(목사, 15교구 지도)

○ 리를 기의 속에 서서히 잊혀져가
T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 지금 IMF 신탁통치 종이라는 긴급
상황에 대한 인식하(認識強化)가 그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IMF
의 신탁통치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
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나 감기는 감기가 찾아오지만, 언제든
지 감기의 정도는 있게 마련입니다.
IMF라는 심각한 감기가 있기 때문
전부터 이기에 대한 지혹은 있어 왔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이미 이런 일 이 다가올 것이냐고 예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선각자였고, 또한 그들 중 일부는 경제 실마가득이었습니다. 선각자들은 외쳤 지만 그 소리는 이내 묻혀 버렸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 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든 또 한 부류 의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말해 주지 않았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고함 떨었습니다. 바가지 들고 거래금 을 순천하러 가는 그날까지 국민들

을 기만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주
오시는 날도 마치 도착같이 올 것이
만, 분명 그 오심에 관한 정조는
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
하다'는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기
아합니다. 때로는 때가 가까웠다고
치는 참 선지자들도 있지만, 그들의
침은 군중의 소리 속으로 사라져 버
립니다. 언론도 권력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가워진 주님의 날에 대
어려 가지 정조들을 붙디나, 우리
IMF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
어려움을 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때
나 한 가지 더 불명한 사실은 미리
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비
고 있어야 했습니다. '보라 내가 도
갈이 있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
치 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계 16:15)라 주님께
맡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섬 · 기 · 는 · 분 · 들

- 원로목사 김창인 ■ 위임목사 김성관

- ## ■ 시무장로

- | | | |
|-----------------|-----------------|--------------------|
| 윤명식
서울대 명예교수 | 김의철
고려대 명예교수 | 조근근
고려대 명예교수 |
| 마성택
숙명대 명예교수 | 김재생
신경대 명예교수 | 김철철
고려대 명예교수 |
| 손동운
고려대 명예교수 | 노광현
대림대 명예교수 | 오진국
고려대 명예교수 |
| 이병학
고려대 명예교수 | 한원희
고려대 명예교수 | 최태원
고려대 명예교수 |
| 임필섭
고려대 명예교수 | 송기승
고려대 명예교수 | 강진호
고려대 명예교수 |
| 오정현
고려대 명예교수 | 최현철
고려대 명예교수 | 이훈
고려대 명예교수 |
| 서동진
고려대 명예교수 | 송철환
고려대 명예교수 | 김영주
고려대 명예교수 |
| 홍윤구
고려대 명예교수 | 조진경
고려대 명예교수 | 김갑구
고려대 명예교수 |
| 김진재
고려대 명예교수 | 이창호
고려대 명예교수 | 차득철
고려대 명예교수 |
| 박익일
전원대 명예교수 | 김광남
고려대 명예교수 | 이홍식
고려대 명예교수 |
| 이종국
한양대 명예교수 | 유성철
고려대 명예교수 | 김순조
고려대 명예교수 |
| 박민진
이화대 명예교수 | 김진관
고려대 명예교수 | 이병욱
고려대 명예교수 |
| 이신강
숙명대 명예교수 | 최희환
고려대 명예교수 | 최현성 부부
고려대 명예교수 |
| 최기홍
고려대 명예교수 | 이승철
고려대 명예교수 | 이갑재
고려대 명예교수 |
| 전용택
고려대 명예교수 | 이성우
고려대 명예교수 | 최도원
고려대 명예교수 |
| 손철
신경대 명예교수 | 한승규
고려대 명예교수 | 임기태
고려대 명예교수 |
| 김영수
고려대 명예교수 | 장홍식
고려대 명예교수 | 박기근
고려대 명예교수 |

- 부목서

- | | | | | |
|-----|-----|-----|-----|-----|
| 이흥선 | 김희수 | 이재대 | 박광한 | 김정호 |
| 김영수 | 전철문 | 김태현 | 이승수 | 김성호 |
| 정영민 | 조은환 | 조희수 | 김동하 | 차병봉 |
| 김태성 | 김인식 | 권상진 | 서광진 | 이승환 |
| 김해성 | 이준경 | | | |
- 활동도시
- | | | |
|-----|-----|-----|
| 신교시 | 이윤라 | 노동민 |
| 김포시 | 오정관 | 김경대 |
| 김포시 | 박기근 | 염영일 |
- 편집도시
- | | | | | |
|-----|-----|-----|-----|-----|
| 정영민 | 현정남 | 장영자 | 임태주 | 김정자 |
| 배옥인 | 박지혜 | 박인희 | 송창자 | 신동자 |
| 문은옥 | 오경숙 | 손희숙 | 김영화 | 한영준 |
| 박희화 | 김영숙 | 김복순 | 김연식 | |
- 편집도시사
- 박양현

에 배 아 : 11

- | 구분 | 매개변수 | | 참고 |
|-----------------|----------------------------|----|----------|
| | I | II | |
| 200매 | 오전 7:00 | 본당 | 복합기 사용금지 |
| | 오전 9:00 | 본당 | |
| | 오전 11:00
(수회, 화회 등특별예배) | 본당 | |
| | 오후 1:00(가정예배) | 본당 | |
| | 오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 본당 | |
| English Service | 9:00 a.m. | | |
| 천일 예배 | 오후 5:00 | 본당 | |
| 수요 예배 | 12:00 ~ 1:00 오후 7:30 | 본당 | |
| 금요일 예배 | 오후 7:30 | 본당 | |
| 주일 예배 | 오전 9:00 | 본당 | |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신학, 영화, 동시주례 예배)	본당
	IV 오후 1:00(한국 동시주례 예배)	본당
	V 오후 5:30 (영화가 다 되는 예배)	본당
English Service	9:00 a.m.	북미관 가톨릭관(Korea Hall)
현장 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 예배	12:00 ~ 11:00 오후 7:30	본당
수요 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후 4:00	본당